

배우 없는 무대에서 작동하는 텍스트의 행위성:

온트로에렌드 후트의 <Handle with Care>

신은경

온트로에렌드 후트의 연극 <Handle with Care>는 배우의 부재 속에서 텍스트와 사물이 관객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무대 장면이라는 개념의 본질을 재사유하도록 이끈다. 이 작품은 기존 드라마 중심 연극의 밑바탕을 이루는, 배우의 몸을 통해 재현되는 텍스트와 그 발화된 텍스트를 해석하는 관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는 공연이다. 장면은 관객이 객석에 놓인 작은 종이 위의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처럼 무대를 “행위화, 발화작용”의 장소로 보며, 스펙타클보다 텍스트의 낭독을 앞세우는 관점은 필리프 라쿠-라바르트의 원연극 개념과 맞닿아 있다. 더 나아가 본 공연은 발화의 시각적 실현으로서의 무대화 - 입을 강조하는 장-뤽 낭시의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낭시의 입의 은유로 무대 공간을 바라볼 때, 텍스트의 무대화 과정은 인간 주체만의 발화를 넘어 인간-비인간이 복합적으로 얽힌 관계망 속에서 매번 새롭게 구성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의 사유가 가능한 것은, 기존 무대 위에서 발화 사건을 담당하던 주체 배우가 부재함으로써 발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새롭게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낭시의 무대 개념을 단초 삼아, 배우 없는 무대에서 텍스트와 사물이 비인간 주체로서 관객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ANT)과 캐서린 헤일스의 “물질적-정보적 실재(material-informational entity)”로서의 텍스트, 마틴 부버의 비인간과의 “나 - 너(Ich - Du)”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